

# 18개국 해조류 전문가, 완도 양식장 방문

60여 명 미역·김 등 해조류 품질·양식 규모에 감탄  
2021년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 효과까지 톡톡

18개 국가의 해조류 전문가 60여명이 완도지역 해조류 양식장을 찾았다. 완도군은 2일 “제23회 국제해조류심포지엄(ISS 2019)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60여명의 해조류 전문가들이 최근 완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18개국에서 온 해조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해조류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를 찾아 해조류를 이용한 다양한 개발제품과 연구 개발 현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의 마리너프로그램 디렉터 마크 본 키츠 박사, 세계자연기금(WWF)의 폴 다빈스 박사, 미국 우주촌 해양연구소 스캇 린달 박사 등이 완도군의 미역, 다시마, 김, 톳 양식장 등을 방문했다. 다시마 양식장을 둘러본 덴마크에서 온 참가자는 “우선 다시마가 굉장히 커 놀랐고 신선함에 다시 한 번 놀랐다”며 “해조류 생산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갖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키츠 박사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규모와 최상의 품질의 해조류 생산품에 매우 놀랐다. 미국에서는 여러 규제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근해양식의 어려움이 있어 에너지부에서는 최근 총 2천200만 달러(250억원)의 예산을 위해 해조류 양식 산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해조류 양식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에너지부의 해조류 양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김장균 교수는 미국의 전문가들과 동행하며 “한국의 양식기술과 미국의 해조류 양식의 생태계 서비스 접근 방식을 접목시키며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도군은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해

조류심포지엄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막식에 참석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는 해조류에서 미래를 본다”며 “완도군은 해조류 양식과 해조류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4년과 2017년에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했고 오는 2021년 개최될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완도군은 국제해조류심포지엄에 완도군 홍보 부스를 설치해 완도군의 해조류 양식 산업과 2021년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국제해조류심포지엄(ISS 2019)은 3년 주기로 개최되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완도=윤보현기자



## ‘맛의 도시’ 목포, 미스코리아와 함께 알린다

전통시장서 목포사랑운동 등 홍보 캠페인

미스코리아 전남·제주 지역예선 참가자들이 지난 1일 목포 전통시장 일원에서 ‘맛의 도시 목포’와 ‘목포사랑운동’ 홍보에 나섰다. 〈사진〉이날 행사에는 미스코리아 지역예선 참가자 21명과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한 목포시장 직원, 동부시장 상인회, 종합수산시장 상인회가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 전통시장인 동부시장과 종합수산시장에서 ‘맛의 도시 목포’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진절할 미소로 손님 맞이하기’, ‘상가 주변 청결유지’ 등 목포사랑운동 동참을 홍보했다. 상인들은 전국을 대표하는 맛의 도시 시민으로서 전통시장이 목포의 대표 먹거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맛의 도시 목포’ 거리 캠페인 활동은 전남 제주 예선전과 최종 본선에서 대회 참가자들의 지역 활동내용으로 상영돼 맛의 도시 목포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정해선기자

## 무안군 민원실 ‘새단장’

소통실 설치 행정서비스 확대

무안군이 군청 민원실을 공감과 소통의 공간으로 새단장했다. 2일 무안군에 따르면 기존 민원실은 공간 효율성이 낮고 디자인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군은 이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과 타자치단체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이번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다. 새롭게 단장한 민원실은 관공서가 아닌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해 대기실 전체를 원목 분위기로 리모델링했고 산뜻한 느낌의 소파와 집기를 배치했다. 또한 군민소통실을 설치해 민원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고 다양한 음료도 제공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휠체어 진입 공간 확보와 민원인 전용 컴퓨터에 시각장애인용 위한 화면읽기 프로그램도 설치했다. /무안=전양태기자



보성 5월 통합축제 성공 기원 퍼레이드

보성 5월 통합축제는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제45회 보성다향대축제(5월 2-6일) ▲제22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5월 3-5일) ▲제18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5월 4-6일) ▲올모 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5월 4-5일)이 열린다. /보성군 제공

지난 1일 보성군 보성을 시내에서 ‘보성 5월 통합축제’를 알리는 전야 행사로 시가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퍼레이드에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염원하는 12개 읍·면민을 비롯한 사회단체 유관기관 회원들이 함께했다.

## 장성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郡, 보험료 85%까지...농업인 부담 완화

장성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재해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화재, 유해조수 피해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

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장성군은 올해 군비 5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당초 20%였던 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15%로 대폭 낮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비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

충, 재이앙, 재작파, 수확 감소에서 오는 피해를 보상한다. 이 중 모내기 및 벼씨를 직접 파종하지 못하는 직파 불능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오는 1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특약가입 시 지난해까지 보장되던 6종의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에 최근 많이 발생하는 세균성 벼알마름병 보장을 추가해 모두 7종의

병충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재배방식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성군은 660㎡(1마지기)에 평균 700원을 기준으로 100마지기 벼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할 때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대략 7만원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후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장성군에는 이상저온, 폭염, 가뭄, 호우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해 재해보험으로 344농가가 25억여원의 피해보상을 받은 바 있다. /장성=김문태기자

영광경찰, 교통사고 예방 총력

영광경찰서는 최근 군서면에서 농번기철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과 이륜차, 경운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영광경찰서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영광=김동규기자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